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의 이중매개 효과*

배 성 만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 중 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고 영 삼

한국정보화진흥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 변인이 이중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 경기, 대구 및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 32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 피험자가 267명(남 124명, 여 143명), PC 방의 주인과 학교로부터 인터넷 과다사용자로 지목된 표적표본이 62명(남 56명, 여 6명)이었다. 일반표본과 표적표본 간 측정변인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을 제외한 인터넷 중독,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심리·행동적 문제(공격성, 주의력 문제, 행동문제)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검증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중매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적 대안을 찾는 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인터넷 중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사용도

*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중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 053-850-4332, E-mail : pjk@daegu.ac.kr

인터넷 중독자의 심리, 정서 및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공격성, 충동성, 불안, 성격특성과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력, 충동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위지희, 채규만, 2004), 인터넷 사용동기(장일순, 2000; 소병현, 2006; 홍윤진, 2002; 윤숙진, 2004; 김종범, 1999; 천명재, 김창대, 2005; 김휘정, 2007),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권재환, 2005; 성한기, 안경옥, 2005) 변인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은 학습 및 정보 습득, 놀이문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인터넷 사용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교현, 2001, 장재홍, 2004). 안석(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낮은 중학생들이 인터넷중독 성향이 높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나, 무관심에 의한 좌절, 혹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홍, 2004).

조춘범(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부모가 권위적인 가정의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2001)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2005)는 잠재성장 모형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

변인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청소년들 대상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게임사용을 조절하는데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민, 2005). 이렇듯 관련 연구들에 기초할 때,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이 인터넷 중독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의 특징 때문에 스트레스와 공격적 충동 등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다양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Young (1998)은 인터넷 게임의 사용에 있어서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현실에서 공격성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는 자신의 공격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에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인터넷은 대리만족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정현웅과 오세덕(2008)의 연구에서도 농촌지역 고등학생들 중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충동성과 공격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준기와 최용용(2011)의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인터넷 중독의 유의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경향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권수경, 장은영, 2010; 김용익, 이동훈, 박원모, 2010; 황윤원, 이동훈, 2011),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이 특히 시지각적 자극에 쉬이 주위를 빼앗기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적 문제는 인터넷 중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 행동적 문제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영경, 장훈, 최진이, 허태균(2008)은 초등학교 5-6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개방형, 문제형)이 아동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이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우울, 불안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재, 2007; 백경미, 현성용, 한영숙, 2008).

한편, 인터넷 중독을 행위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정 행위는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표현정, 이민규, 2009; Cooper, 1994), 구체적인 동기는 행동의 방향, 지속성 및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동기의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동기로 사회적 도피, 정보검색, 대인관계, 시간보내기 등의 요인들을 가정했으며(Korgaonkar & Wolin, 1999; Papacharissi & Rubin, 2000). 국내에서는 즐거움, 사회적 관계, 시간보내기, 정보 추구, 자기표현, 도피, 오락 등의 인터넷 사용동기가 제안되고 있다(김재휘, 홍재욱, 2000; 박성희, 최준호, 2004; 김지현, 2001).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정보검색, 성취(레벨업), 소일거리, 자기표현, 사회적 관계 등의 공통적인 요인들이 발견된다(천명재, 김창대, 2005).

표현정과 이민규(2009)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 모형(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였고, 연구결과, 인터넷 사용 동

기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행동을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조환익과 이경호(2009)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사용동기(상호작용, 현실도피, 정보이용, 성적)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 변인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세 변인의 관계를 설명한 장재홍(2004)의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욕구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부모의 수용거부, 부모의 자율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중요한 인터넷 사용동기라 할 수 있는 성취, 자기표현 등의 동기가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종합해 보면, 2000년 대 이후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일부 시도들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이 인터넷 사용동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동기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 예측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가정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심리·행동적 문제를 포괄한 설명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려고 한다.

청소년들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면, 인터넷 중독 역시 부모-자녀간의 문제 특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공격성, 주의력 및 품행 문제 등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러한 심리, 행동적 문제들은 청소년기의 성취, 자기표현,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 쉽고,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성취, 자기 표현, 관계 등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적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아질 수 있으며 과도한 인터넷 사용동기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선행요인으로 가정하고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을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자의 특성이나 중독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방법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대상자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인터넷 중독자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방 주인에 의해 PC 방에 방문하는 청소년 중 인터넷 과다사용자로 지목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PC 과다 사용자로 지목된 표적표본(target sample)을 포함시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인터넷 중독을 더 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표본은 일반표본과 표적표본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 경기, 대구 및 강원 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표본은 지역의 해당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67명(남 124명, 여 143명)이었다. 표적표본은 PC방 및 학교에서 PC

방 주인과 선생님들에 의해 인터넷 과다사용자로 지목된 학생들로 총 62명(남 56명, 여 6명)이었다. 일반전집에서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표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표적표집을 시도했다. 총 350명의 표본 중 누락한 문항이 많고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답했다고 판단한 21명을 제외한 총 32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표적표본의 평가

표적표본의 평가와 면접은 PC방 주인이 지목한 고위험 사용자와 학교 의뢰 청소년의 경우 PC 사용문제로 학교에서 지목하여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약 6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반표본과 동일한 자기보고질문지를 작성하였고, 면담 후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0문항, 7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의 영역 점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사용자군, 아직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중독의 위험이 있는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그리고 현재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사용자군 등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 4점 척도로 각각 10문항씩 두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는데, 첫 번째 하위 척도는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로 부모-자녀 간에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척도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로 가족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을 측정한다.

K-YSR 척도의 비행, 주의산만, 공격성 문제

Achenbach(1991)이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와 홍강의(2001)에 의해 번안 발간된 K-YSR 척도 중 외현적 행동장애에 해당되는 주의산만, 공격성, 비행문제를 측정하였다. K-YSR은 12세~17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상으로 추출된 119개의 문항을 3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다. 비행 척도는 13개 문항, 주의산만 11개 문항, 공격성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천명재와 김창대(2005)의 척도와 윤수연(2005)과 광웅신(2006)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9요인의 27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하위영역은 성취(레벨업), 자기표현, 소일거리(심심해서, 고민이나 괴로움을 잊으려고), 정보관리(홈피/블로

그 관리), 친구만남(ex,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기공간(ex, 내 관심사를 가질 수 있어서) 성적 자극추구(ex,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하여), 업무편의(ex, 일이나 과제물을 하기 위해), 색다른 자극추구(ex,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등 9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나표현, 성자극, 성취(레벨업), 소일거리, 자기공간 5개 동기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현황 질문지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인터넷 사용현황(1회 접속시간, 일일 접속횟수, 주간 접속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

먼저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15.0 Program을 사용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표본과 표적표본 간 측정변인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7.0 Program을 사용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부분 이중매개와 완전 이중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있어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모형의 최종 적합도 유무를 결정하였다(조현철, 2003; 김계수, 2004).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카이제곱 이외에 비교적합도 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다. CFI,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며, RMSEA는 .05 이하일 때 최적모형, .05-.08 사이일 때 양호한 모형, .80-.10 사이일 때 보통 수준의 모형, .10 이상이면 적합도가 나쁜 모형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인터넷 사용 현황

청소년 전체표본은 329명으로 남성 180명(54.7%) 여성 149명(45.3%)이었다. 일반표본이 269명으로 남성 124명(46.1%), 여성 144명(53.5%)이었다. 표적표본은 62명으로, 남성 56명(90.3%), 여성 6명(9.7%)으로 표적표본은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졌다. 연령은 일반표본이 평균 15.32세(1.70), 표적표본이 평균 15.78세(1.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1.87, df = 326, p > .05$). 학력은 일반표본군의 경우 고등학생이 149명(55.4%), 중학생이 117명(43.5%)이었고, 표적표본군은 고등학생이 22명(38.6%), 중학생이 35명(61.4%)이었다.

컴퓨터에 접속하는 장소로는 일반표본이 집(89.6%), PC방(5.9%), 학교(2.2%) 순이었고, 표적표본도 집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PC방(46.8%), 학교(1.6%)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일반표본에서 기혼 94.9%, 이혼/별거/사별 4.8%였으나 표적표본에서는 기혼 77.4%, 이혼/별거/사별 20.7%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아버지의 학력이 일반표본에서 대졸이상 31.6%이나 표적표본에서는 21%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일반표본은 대졸이

상 21.2%, 중졸미만 4.5%였으나 표적표본은 대졸이상 17.7%, 중졸미만 11.3%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K-척도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자의 범주분포는 고위험군 5.5%, 잠재위험군 5.8%, 일반군 88.8%였다. 일반표본에서 고위험군 비율이 0.4%, 잠재위험군이 3.0%인 것에 비해, 표적표본에서는 고위험군이 27.4%, 잠재위험군 17.7%로 일반표본과 표적표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96.11, df = 2, p < .01$).

일반표본 집단과 표적표본 집단 간에 측정변인들의 평균차이 검증

두 집단 간 인터넷 중독 지수,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개방적, 역기능적), 심리, 행동적 문제(공격성, 주의력 문제, 품행문제)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측정변인간의 상관분석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방적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관련성이 적었다. 다른 측정변인들간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관련성이 있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이 심리, 행동적 문제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인터넷 사용 현황

변인		전체(n=329) ^a		일반표본(n=267) ^a		표적표본(n=62) ^a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180	54.7	124	46.1	56	90.3
	여	149	45.3	144	53.5	6	9.7
연령	13세	26	7.9	23	8.6	3	4.8
	14세	75	22.8	63	23.7	12	19.4
	15세	46	14.1	34	12.8	12	19.4
	16세	23	7.0	15	5.6	8	12.9
	17세	82	24.9	76	28.6	6	9.7
	18세~	76	23.1	55	20.7	21	33.9
	초등졸업	3	0.9	0		3	4.8
학력	중학 재학	154	46.8	119	44.6	35	56.5
	고등 재학	172	52.3	148	55.4	24	38.7
	기혼	300	91.2	254	94.9	48	77.4
부모의 결혼상태	이혼	14	4.3	4	1.5	10	16.1
	별거	4	1.2	3	1.1	1	1.6
	사별	8	2.4	6	2.2	2	3.2
	기타	3	0.9	2	0.7	1	1.6
	집	274	84.0	241	89.6	33	53.2
접속장소	학교	7	2.1	6	2.2	1	1.6
	PC방	43	13.2	15	5.7	28	45.2
	기타	2	0.6	2	0.8		

a. 결측치 때문에 각 빈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 일반표본 집단과 표적표본 집단 간 측정변인들의 평균차이

변인	일반표본(N=267)	표적표본(N=62)	t
인터넷 중독 총합	62.93(14.62)	92.19(24.22)	-9.14 ^{***}
사용동기 총합	63.00(15.83)	82.56(19.31)	-7.42 ^{***}
개방적 의사소통	22.70(5.39)	21.94(5.91)	0.99
역기능적 의사소통	22.49(3.92)	23.73(4.58)	-2.17 [*]
공격성	4.87(4.35)	7.87(4.99)	-4.77 ^{***}
주의력	3.76(3.11)	5.44(3.53)	-3.73 ^{***}
품행문제	4.27(3.31)	6.58(3.89)	-4.33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개방적 소통	역기능 소통	공격성	주의력 문제	나표현	성지극	레벨업	소일거리	자기공간	일상생활	현실구분	긍정기대	금단	가상관계	일탈행동	내성
개방적 소통																
역기능 소통	.28***															
공격성	-.13*	.21***														
주의력문제	-.08	.26***	.70***													
품행문제	-.04	.21***	.69***	.53***												
나표현	-.01	.25***	.29***	.30***	.23***											
성지극	-.02	.09	.27***	.21***	.29***	.37***										
레벨업	-.03	.16**	.32***	.28***	.26***	.54***	.46***									
소일거리	-.02	.25***	.30***	.34***	.30***	.58***	.31***	.51***								
자기공간	.03	.28***	.18**	.26***	.18**	.60***	.31***	.34***	.58***							
일상생활	-.03	.26***	.36***	.40***	.36***	.47***	.38***	.51***	.50***	.41***						
현실구분	-.00	.08	.39***	.44***	.31***	.38***	.42***	.47***	.35***	.24***	.53***					
긍정적기대	-.04	.21***	.41***	.41***	.35***	.54***	.35***	.48***	.56***	.50***	.54***	.54***				
금단	-.01	.27***	.42***	.41***	.39***	.46***	.35***	.49***	.50***	.39***	.59***	.73***	.53***			
가상관계	-.06	.20***	.38***	.34***	.29***	.60***	.31***	.48***	.44***	.33***	.47***	.60***	.53***	.53***		
일탈행동	-.06	.28***	.42***	.36***	.38***	.49***	.41***	.56***	.48***	.38***	.57***	.54***	.66***	.53***	.70***	
내성	-.01	.30***	.37***	.39***	.34***	.50***	.36***	.56***	.50***	.41***	.54***	.62***	.74***	.47***	.70***	.70***

* $p < .05$, ** $p < .01$, *** $p < .001$

와 인터넷 사용 동기 변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 이중 매개 모형을 가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 이중 매개모형을 가정하고 완전 이중 매개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2개의 모형은 서로 동지관계(nested relation)에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 차이 검증(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Bentler & Bonett, 1980)을 통해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모형검증은 일반표본과 표적표본으로 분리하여 수행하지 않고 두 표본군을 합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완전 이중 매개 모형(그림 1)은 $df=113$, $\chi^2=318.406$, $TLI=.916$, $CFI=.930$, $RMSEA=.074$ 로 카이제곱 값이 기각되었으나 카이제곱 수치는 피험자 수의 영향에 민감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카이제곱 지수 이외의 TLI , CFI 값이 양호한 기준인 .90 이상이며, $RMSEA$ 값도 양호한 기준인 .08 이하로 모형 1은 양호한 모델로 판단된다. 부분 이중 매개 모형(그림 2)은 완전 이중 매개모형에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였다. 적합도 검증 결과, $df=112$, $\chi^2=313.946$, $TLI=.917$, $CFI=.931$, $RMSEA=.074$ 로 나타났다. 즉, 완전 이중 매개모형에 비교해 자유도 1이 감소한

것에 비해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318.406-313.946=4.46$, χ^2 의 임계역은 5% 유의수준에서 3.84), 부분 이중 매개모형이 완전 이중 매개모형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표 4).

각 경로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 경향이 강할수록 심리, 행동적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84, p < .001$), 심리, 행동적 문제가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동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3, p < .001$). 그리고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28, p < .001$). 또한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클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0, p < .05$).

다음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심리, 행동적 문제를 매개하여 인터넷 사용동기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086, 유의도 수준은 .004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심리, 행동적 문제가 인터넷 사용동기를 경유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131, 유의도 수준은 .004로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80, 유의수준은 .037로 직접효과가 유의했다.

표 4. 완전 이중 매개와 부분 이중 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GFI	TLI	CFI	RMSEA
완전 이중 매개	318.406	113	.898	.916	.930	.074
부분 이중 매개	313.946	112	.899	.917	.931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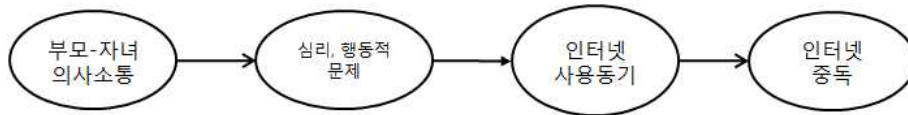


그림 1. 완전 이중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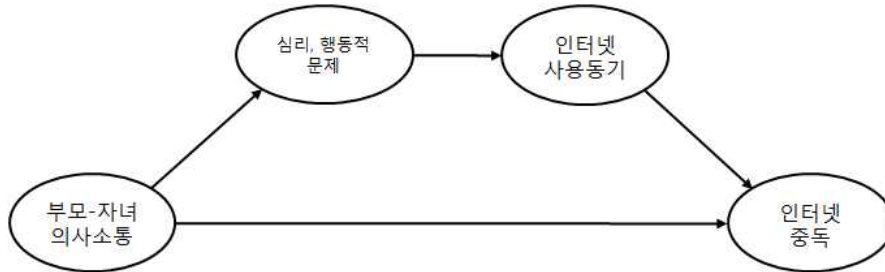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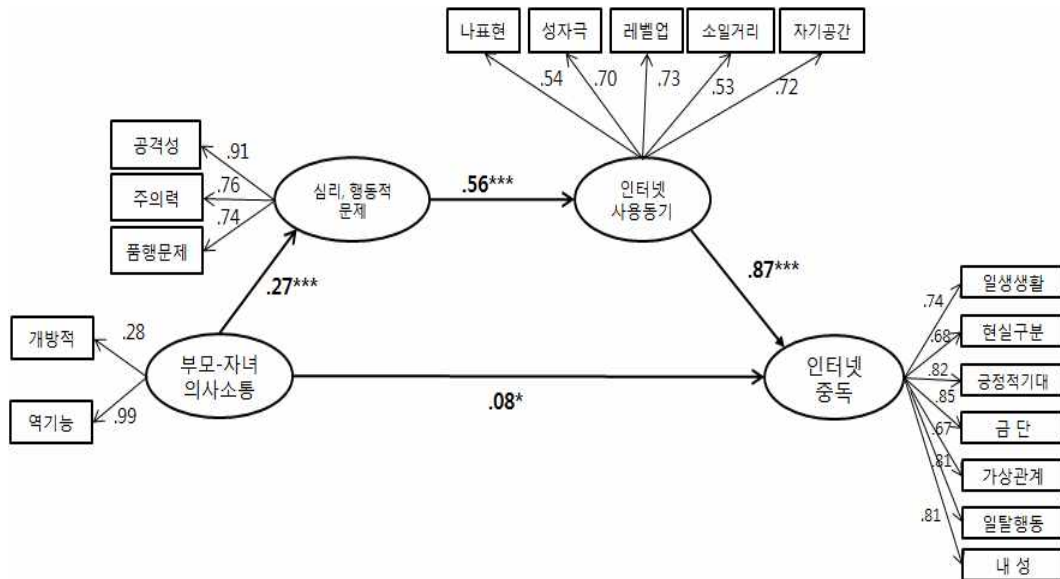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이중매개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부분 이중매개 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따라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를 매개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가는 부분 이중 매개가 성립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는데 있어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가 이중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듯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조한익, 이경호, 2009;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이는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제가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 행동적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강할수록 공격성, 주의력 문제, 품행 문제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 행동적 문제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 행동적 문제가 커질수록 나타표현, 성자극, 레벨업, 소일거리, 자기공간 같은 인터넷 사용동기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성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허정선, 2009).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가 부분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지속은 다양한 심리,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고 나아가 인터넷 과다사용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공격성(윤수연, 2005), 주의력 문제(황윤원, 이동훈, 2011), 품행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경향이 강할수록 심리, 행동

적 문제가 동반되기 쉬우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편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ex, 온라인 게임, 채팅, 커뮤니티 활동 등)에서 자기표현, 성취, 관계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대리 보상하고 지속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 표적표본과 일반표본 간에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평균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더 많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 표적표본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심리, 행동적 문제가 가중되면 학업 등 현실세계에서의 성취가 어려워지기 쉽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성취욕구를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는데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이 높아짐에 따른 긍정적 피드백은 강한 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성향이 높고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큰 청소년일수록 전쟁, 싸움 등을 소재로 하는 게임을 통해 그들의 공격성과 분노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과격하고 파괴적인 게임에 의존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제가 어떻게 인터넷 중독경향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공격성, 주의력 문제, 품행 문제 등의 심리, 행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인터넷 공간이 상대적으로 쉽게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과도한 인터넷 사용동기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늘리게 되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금단, 내성, 사회적 철회 등의 인터넷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와 치료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판단하고 심리적 개입을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형태(개방적이지 혹은 역기능적이지)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심각성,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동기와 사용동기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조한익, 이경호, 2009). 부모-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지속으로 인해 청소년 개인의 감정 및 의사표현이 제한된 경우라면 자기표현 동기가 특히 상승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부모-자녀 대화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심리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업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평소 실패 경험이 잦고 자신감이 부족한 청소년이라면 성취에 대한 보상을 인터넷 게임의 레벨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현실적인 학업성취 계획과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현실에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문제 및 심리, 행동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며, 주의력 문제 및 행동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동시에 혹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심리, 행동적 문제 역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최인재, 2007; 백경미, 현성용, 한영숙,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교육 및 치

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청소년 집단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표본을 포함시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와 치료는 이러한 표적표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파악하고 치료적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시점에서 이루어졌기에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들 간의 인과적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적 연구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는 양방향의 인과적 가정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면담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대상자의 선정과정에 활용될 면접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특성들을 중심으로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개인특유의 질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면접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인터넷 중독 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자료수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는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문항들을 재구성한 것으로써 구성 및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 동기 변인의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고 향

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수경, 장은영 (2010). 정신과 방문아동의 인터넷 사용문제: 동시이환 장애 및 영향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67-1086.
- 권재환 (2005). 심리적·환경적 변수와 인터넷 게임 중독간 관계: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윤희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예측 모형 구축.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웅신 (2006).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교현 (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컴퓨터 중독. *학생생활 연구* 28(1), 41-62,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용익, 이동훈, 박원모 (2010).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의 관계. *상담학 연구*, 11(1), 245-264.
- 김재휘, 홍재욱 (2000).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기와 사이트 이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 25-46.
- 김중범 (1999). 인터넷중독 하위집단의 특성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1). 여성의 인터넷 사용동기, 만족,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 일반정책연구, 02-GP-11.
- 김휘정 (2007). 청소년의 애착 및 방어기제와 인터넷중독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41-51.
- 박성희, 최준호 (2004). 인터넷 이용 동기와 이용 행태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48(4), 243-271.
- 박승민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경미, 현성용, 한영숙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성한기, 안경옥 (2005). 인터넷 사용유형과 중독수준에 따른 친구관계 및 가상공간의 현실지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4) 475-478.
- 소병현 (2006).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선숙, 명재신, 김청송 (201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의 탐색

- 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21-535.
- 안 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위지희, 채규만 (200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성향과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397-416.
- 윤숙진 (2004). 중고교생의 충동성 및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사용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수연 (2005). 인터넷 게임중독 및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게임특성, 게임이 옹동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수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자녀교육.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경, 장 훈, 최진이, 허태균 (2008). 부모-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89-404.
- 이준기, 최용용 (2011).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85-2104.
- 장일순 (200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 논총, 18, 65-83.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요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정현웅, 오세덕 (2008).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의 차이. 상담학연구, 9(2), 601-614.
- 표현정, 이민규 (2009).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모형의 탐색: 중독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4(3), 531-548.
- 조춘범 (2001).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가정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석정.
- 조한익, 이경호 (2009).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과다사용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5), 23-43.
- 천명재, 김창대 (2005). 인터넷 이용 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중독자 분류 연구. 상담학연구 6(1), 211-227.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황원원, 이동훈 (2011).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17-113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윤진 (2002).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 정책적 대응방안. 한성대학교 학위논문

- 허정선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 Korgaonkar, P. and Wolin, L. (1999). "A multivariate analysis of web usag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9, 53-68.
- Papacharissi, Z. and Rubin, A. M. (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2), 175-196.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Hohn Wiley & Sons, Inc.

원 고 접 수 일 : 2012. 09.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2. 12. 11.

최종게재결정일 : 2012. 12. 1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 and Internet Use Motivation

Sung-Man Bae¹⁾

Joong-Kyu Park²⁾

Young-Sam Ko³⁾

¹⁾Ilsan Paik hospital, Department of Mental Health

²⁾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³⁾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explai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 and internet use motivation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addiction for adolescents. This study enrolled 329 adolescents(middle and high school) who live in Seoul, Gyeonggi, Daegu and Gangwon. general adolescent samples are 267 persons(male 124, female 143), target samples are 62 persons(male 56, female 6). In order to compare partial dual mediation and full dual mediation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by AMOS 7.0 programs. Results showed that parent-child communication had indirectly a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via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s and internet use motiv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had directly a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That is, a partial dual mediation model fit the data of our study well.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internet use motivation, psychological, behavioral problem